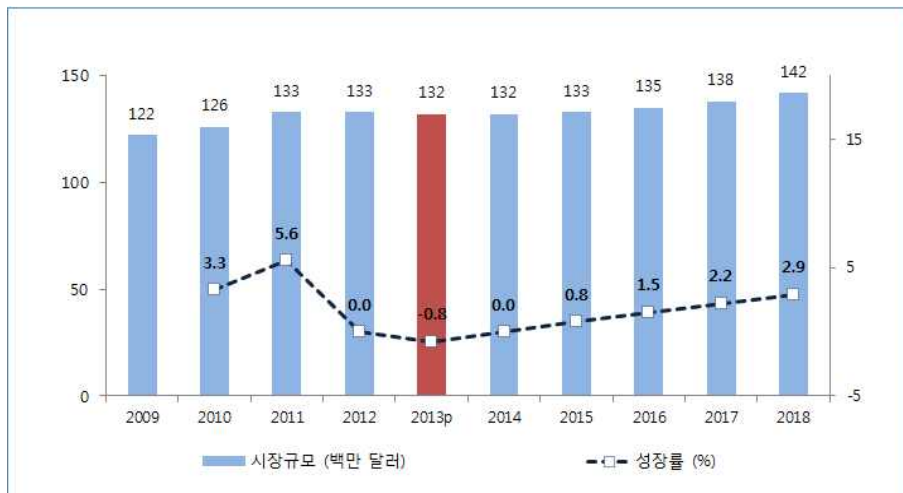


### (3) 음악

2013년 아르헨티나 전체 음악시장은 오프라인 음반의 매출이 크게 하락하면서 전년대비 0.8%의 감소한 1억 3,2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향후 불법복제와 스트리밍 서비스의 증가로 CD, DVD와 같은 오프라인 음반의 수익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 오프라인 음반시장은 2018년까지 향후 5년간 연평균 9.1%의 감소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오프라인 음반시장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음원시장과 공연 음악시장의 높은 성장세에 힘입어 아르헨티나 음악시장은 2018년까지 향후 5년간 연평균 1.5%의 성장세를 보이며 1억 4,2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6-13] 아르헨티나 음악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09 - 2018



출처 : PwC(2014)

[표 6-5] 아르헨티나 음악시장 규모 및 전망, 2009-2018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p	2014	2015	2016	2017	2018	2013-18 CAGR
음반	78	80	84	82	77	73	69	65	61	57	△5.7
오프라인 음반	72	71	75	71	65	60	55	50	45	41	△9.1
디지털 음원	6	9	9	10	11	12	14	15	16	16	8.2
공연 음악	44	46	49	52	55	59	64	70	77	85	9.0
합계	122	126	133	133	132	132	133	135	138	142	1.5

출처 : PwC(2014)

제1절

1. 미국

2. 캐나다

제2절

1. 브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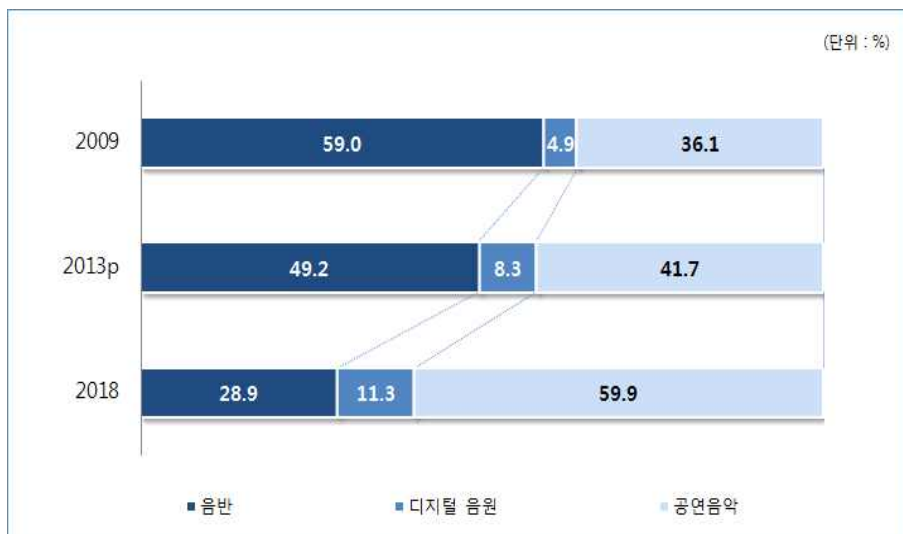
2. 멕시코

3. 아르헨티나

4. 칠레

2013년 아르헨티나 음악시장은 오프라인 음반시장이 49.2%, 공연 음악시장이 41.7%의 점유율을 보이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전체 음악시장의 59.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던 음반시장은 불법복제와 디지털 음원으로의 소비자 이탈로 점유율이 감소하여 2018년에는 전체 음악시장의 28.9%까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공연 음악시장은 2009년 36.1%에서 라이브음악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높아지면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8년에는 59.9%의 점유율을 보이며 음악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림 6-14] 아르헨티나 음악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09 vs. 2013 vs.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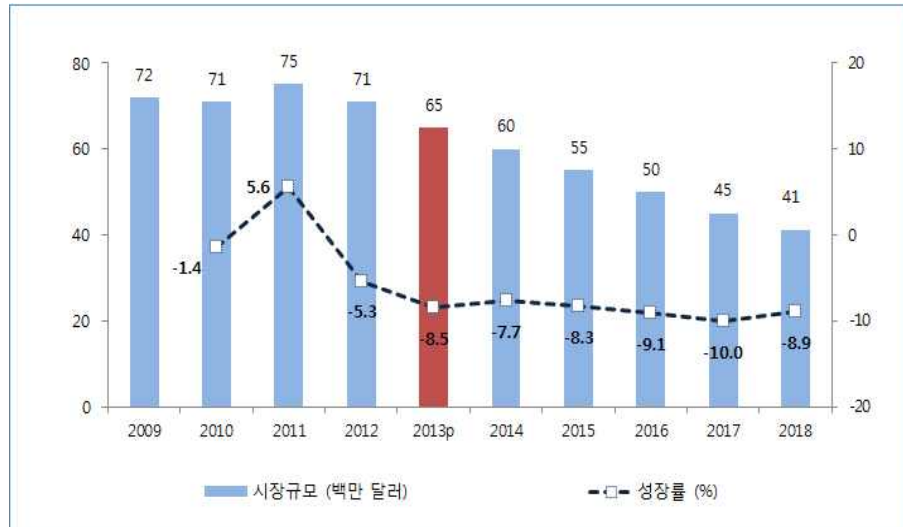


출처 : PwC(2014)

### 가. 오프라인 음반

2013년 아르헨티나 오프라인 음반시장은 일상화된 불법복제물로 인하여 유사한 경제 규모를 가진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를 보이고 있다. 2011년 7,500만 달러의 규모를 보였던 오프라인 음반시장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에는 전년대비 8.5%나 하락한 6,500만 달러에 그쳤다. 향후 오프라인 음반시장은 불법복제물로 인하여 정상적인 매출을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의 출시로 소비자 이탈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2018년까지 향후 5년간 연평균 9.1% 감소한 4,100만 달러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6-15] 아르헨티나 음반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09 - 2018



출처 : PwC(2014)

## 나. 디지털 음원

2013년 아르헨티나의 디지털 음원시장은 통신기반 시설의 빠른 성장과 글로벌 음악 서비스의 시장 진출에 힘입어 전년대비 10.0% 성장한 1,1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아르헨티나는 2013년 기준 애플의 아이튠즈(iTunes)가 다운로드 분야의 선두를 지키고 있으며, 디저(Deezer)와 알디오(Rdio), 스포티파이(Spotify) 등과 같은 유료가입 음악 서비스업체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

텔레포니카(Telefonica)의 자회사로 로컬 인터넷 서비스업체인 테라(Terra)는 2013년 냅스터(Napster)의 소유자인 미국 서비스업체 랩소디(Rhapsody)와 계약을 맺고 최근 자사의 스트리밍 서비스인 소나라(Sonara)를 냅스터로 리브랜딩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디지털 음원시장은 스트리밍 서비스의 높은 성장에 힘입어 향후 5년간 연평균 8.2%의 성장률을 보이며 2018년 1,6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제1절

1. 미국

2. 캐나다

### 제2절

1. 브라질

2. 멕시코

3. 아르헨티나

4. 칠레

[그림 6-16] 아르헨티나 디지털 음원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09 - 2018



출처 : PwC(2014)

[표 6-6] 아르헨티나 디지털 음원시장 규모 및 전망, 2009-2018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p	2014	2015	2016	2017	2018	2013-18 CAGR
다운로드	2	4	4	4	4	5	5	5	5	6	6.1
스트리밍	-	2	3	4	5	6	7	8	8	9	12.8
모바일	4	4	2	2	2	2	2	2	2	2	△1.4
합계	6	9	9	10	11	12	14	15	16	16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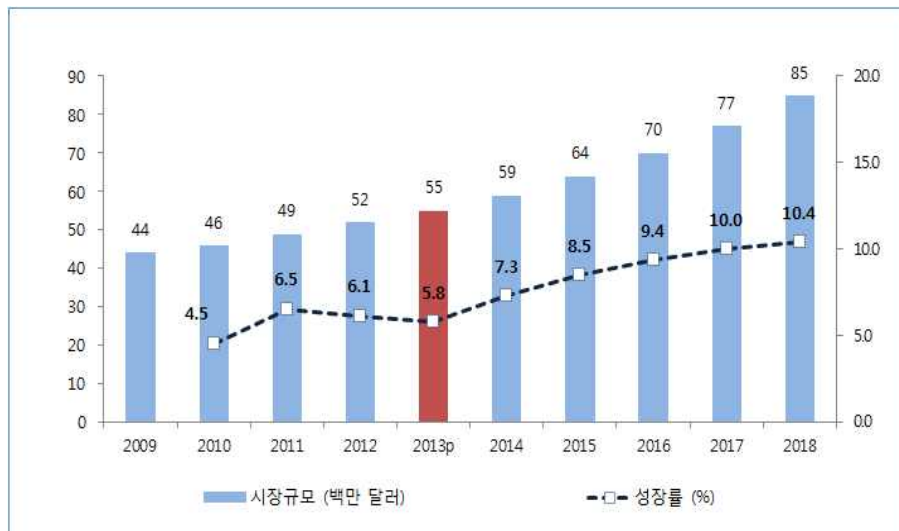
출처 : PwC(2014)

### 다. 공연 음악

아르헨티나 공연 음악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에노스아이레스 재즈 페스티벌(Buenos Aires Jazz Festival)’과 ‘펩시 뮤직 페스티벌(Pepsi Music Festival)’ 등에 힘입어 2013년 전년대비 5.8% 증가한 5,5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리버플라테(River Plate)의 홈구장인 엘 모누멘탈 안토니오 베스푸치오 리베르(Estadio Monumental Antonio Vespucio Liberti) 등 중남미의 메이저 아티스트들이 방문하는 여러 스타디움이 잘 갖추어져 있다. 향후 아르헨티나 공연 음악시장은 대규모 야외공연과 프로모션 그리고 공연 음악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2018년까지 연평균 9.0%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8,500만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6-17] 아르헨티나 공연 음악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09-2018



출처 : PwC(2014)

[표 6-7] 아르헨티나 공연 음악시장 규모 및 전망, 2009-2018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p	2014	2015	2016	2017	2018	2013-18 CAGR
후원	11	12	13	14	15	17	20	23	26	31	14.9
티켓 판매	33	34	36	38	40	42	45	47	51	54	6.3
합계	44	46	49	52	55	59	64	70	77	85	9.0

출처 : PwC(2014)

## 제1절

### 1. 미국

### 2. 캐나다

## 제2절

### 1. 브라질

### 2. 멕시코

### 3. 아르헨티나

### 4. 칠레